

“지난 2년 임기 부끄럽지 않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그리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은 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2주년 맞아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엔 ‘부끄러워’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그리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은 된다고 평가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이 자랑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가장 내세울만한 성과는 ‘전북교육이 깨끗해졌다’, ‘물이 바뀌었다’, ‘탁한 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었다’는 교육 청렴을 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아이들의 삶이 많이 즐거워졌다는 것도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너무 즐거워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학교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쓴다고 한다”며 “이를 총정하는 슬로건이 바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로 교원, 교육행정직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일할 맛이 난다’고 하시는 것”이라며 “그분들로 하여금 내 자리에서 내 소신껏 권한을 행사하면 보호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준 것을 성과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공약사업 중 2기 들어와 가장 앞세웠던 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다”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단순하게 아이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사, 교원도 해당된다.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장 아쉬운 것은 2010년 7월1일 제1기 교육감을 시작할 때 다 집했던 것, 교원 업무를 적정 수준까

지 조정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일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게 교육감 머릿속에 차기가 있다는 것”이라며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계산하게 되고, 비굴해지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 관할이며 대통령 스스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남의 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 옮겨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며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결과와 예견되는 상황에서 돌파하기는 어려웠다”고 돌이켰다.

사립학교 문제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기존 사학법은 사립학교 소유주 보호법”이라며 “사립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역점 추진 ‘투어패스’ 전국적 관광모델로 떠올라

정부에서 벤치마킹 ‘지역관광패스’ 도입

도, KTX 등과 연계 추진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투어패스(전북관광자유이용권)’가 전국적 관광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북투어패스’를 벤치마킹한 모델인 지역관광패스사업을 적극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패스사업을 적극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관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행정자치부도 지역관광패스사업을 관광활성화 모델로 삼고 특화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전북투어패스’의 성장이 기대된다.

앞서 ‘전북투어패스’는 토탈관광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이후 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및 문제점 수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중인 전북투어패스가 전국적인 관심을 얻은 것은 그간

도가 온라인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 전북투어패스 홍보에 힘썼고 이 사업이 알려짐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잠재력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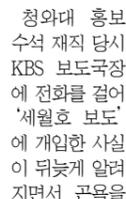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정부 3.0 국민서비스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연계해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과 콘텐츠 확대, 홍보 등에 관한 국민서비스디자인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북도의 ‘전북투어패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관광의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실무협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연계(KTX, 고속버스, 시외버스)까지 포함하여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전북투어패스는 정부-지방간 소통과 협업 과정을 통한 대표적인 수범사례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이정현 “물의 일으켜 죄송... 당권 도전은 계속”

‘세월호 보도 개입’ 관련



청와대 홍보 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 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어쨌든 물의가 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무조건 죄송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해가 됐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시 뉴스에 국방부 해명 후가 아니라 해명 전으로 나갔다”며 “홍보 수석 입장으로 정부 기관의 내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8월 9일 전당대회 출마 관련 질문에는 “당권 도전은 한다”며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출마는 강행 방침을 밝혔다. /박용우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내 귀농귀촌 세대수 증가

지난해 전북도 귀농귀촌세대가 급격히 증가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4면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누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3~4명의 의원들의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된다.

5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확산

전주시에서 처음 제기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지방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7면 민선6기 2주년 임실군정 성과

민선 6기 출범 2년차를 마무리한 심민 임실군수는 “그동안 ‘더 나은 임실, 살고 싶은 임실’을 위해 달려왔다”고 밝혔다.

시민이 행복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GIMJE

김제시